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October 2025 Issue | Vol. 74

SPECIAL POINTS OF INTEREST

- BMI, 2026년 필리핀 경제 모멘텀 약화 전망 —page 1-2
- 9월 차량 판매 4% 감소 — page 2
- SEC, 실소유자 공개 지침 개정 추진 — page 3
- DPWH·PCC, 입찰 담합 근절 위해 협력 — page 3
- 투자심리 위축, 필리핀 은행 실적에 부담 우려 — page 4-5
- 비즈니스 기회와 성장 — page 5-6

UPCOMING EVENT

- [Nov 24, 2025] 2025 KCCP 크리스마스 파티 — page 7

BMI, 2026년 필리핀 경제 모멘텀 약화 전망

October 23,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필리핀의 경제 모멘텀이 내년에 한층 더 약화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 둔화, 송금 감소, 투자 심리 위축 등이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용평가사 피치 솔루션즈의 계열사인 BMI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필리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2%에서 5.2%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에 6%에서 7%로 설정된 각료급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의 성장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다.

BMI는 “성장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이민정책 강화와 2026년부터 송금에 부과될 1% 세금으로 인해 송금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BMI는 “송금 둔화는 국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며,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필리핀과 미국 간의 무역 협정은 필리핀산 상품에는 19%의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산 제품에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2026년 필리핀의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vibrant morning rainbow stretches over Makati's business district.

투자 심리 역시 내년에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안정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홍수 방지 사업에 대한 조사가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부패 사례를 밝혀낼 경우, BMI는 실제 지출이 정부 계획치를 밑돌고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MI는 이미 악천후와 강화된 감독 조치로 인해 인프라 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관리부(DBM)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프라 지출 및 기타 자본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한 849억 페소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의 1,086억 페소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라울프 G. 렉토 재무장관 역시 정부 지출 둔화로 인해 올해 5.5%~6.5%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소식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들이 정리되면서 잠재 성장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MI는 2025년 성장률 전망을 5.4%로 유지했다. 이는 견조한 내수 소비와 선행 지출(frontloading)이 상반기 성장을 지탱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인프라 투자 부진, 투자 활동 위축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BMI는 또 “부패 의혹 조사로 인해 투자 심리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2025년 9월 30일 기준 필리핀증권거래소지수(PSEi)가 약 6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2]

BMI, 2026년 필리핀 경제 모멘텀 약화 전망

[Cont. from page 1]

생산 측면에서도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은 9월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축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분기별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1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8월 수출 증가율 역시 전월 대비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BMI는 202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2%, 2028년에는 6.3%로 전망했다.

이는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가 제시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6~7% 성장 목표 범위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Image credits: [Mau Vict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0/23/phl-economic-momentum-to-weaken-in-2026-says-bmi/>

9월 차량 판매 4% 감소

October 24, 2025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Data released by the 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 Inc. (CAMPI) and Truck Manufacturers Association (TMA) showed that combined sales slipped by four percent to 38,029 units in September from 39,542 units in the same month last year.

마닐라 — 필리핀 자동차 산업의 판매량이 악천후의 영향으로 9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필리핀자동차제조업협회(CAMPI)와 트럭제조업협회(TM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차량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 39,542대에서 4% 감소한 38,029대를 기록했다.

다만, 9월 판매량은 8월(36,174대)보다 5% 증가하며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7,948대로 줄었으며, 상용차 판매는 29,104대에서 30,081대로 3.4% 증가했다.

한편, 전기차(EV) 판매는 9월 한 달 동안 2,223대를 기록,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9월 판매된 전기차(EV) 2,223대 가운데, 1,750대는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379대는 배터리 전기차(BEV), 그리고 94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로 집계됐다.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마이클 리카포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판매의 전년 대비 감소는 지난해의 높은 기준(기저효과)과 최근 몇 주 또는 몇 달간 이어진 연속적인 태풍, 폭우, 홍수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 역시 생산 및 영업 활동에 영향을 주며 판매 둔화에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리카포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달간 오토바이 판매 증가세가 자동차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토바이는 구매 비용, 유지비, 연료비, 주차 공간 등에서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 교통수단으로 일부 필리핀인들에게 자리 잡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월부터 9월까지 필리핀자동차제조업협회(CAMPI)와 트럭제조업협회(TMA)의 총 차량 판매량은 344,307대에서 0.3% 감소한 343,410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승용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69,306대로 줄었으며, 상용차 판매는 253,329대에서 8% 증가한 274,104대로 집계됐다.

전기차(EV) 판매는 1월부터 9월까지 총 20,662대를 기록했다.

이 중 16,335대는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3,657대는 배터리 전기차(BEV), 670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였다.

한편, 토요타 모터 필리핀(Toyota Motor Philippines Corp.)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필리핀 자동차 시장 1위를 유지했다.

미쓰비시 모터스 필리핀(Mitsubishi Motors Philippines Corp.)은 19%로 2위, 포드(Ford Motor Co. Philippines Inc.)는 4.86%, 닛산(Nissan Philippines Inc.)은 4.84%, 스즈키(Suzuki Philippines Inc.)는 4.77%의 점유율로 뒤를 이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0/24/2482016/vehicle-sales-dip-4-september>

SEC, 실소유자 공개 지침 개정 추진

October 23, 2025 | Joan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정보 공개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부패와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프랜시스 림 위원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SEC는 2025년 10월 10일 발표한 ‘실소유자 공개 및 투명성에 관한 개정 지침(Revised Guidelines on Beneficial Ownership Disclosure and Transparency)’ 초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기업이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신원을 식별하고, 이를 정확히 신고·제출하기 위한 SEC의 모든 규정과 지침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EC 등록 기업은 실소유자의 전체 이름,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 국적, 실소유자가 된 날짜 등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해당 개인이 속하는 실소유자 범주, 소유 지분을 또는 의결권 비율(해당되는 경우), 실소유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통제 방식과 수단, 실소유권이 취득 또는 설정된 날짜 등을 보고해야 한다.

SEC는 이번 개정안이 오픈 오퍼너십(Open Ownership)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지원을 받아 마련되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다각적 접근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또 이번 지침이 무기명주(bearer shares)의 금지, 명의신탁(위임) 계약의 공개 의무화, 허위 신고 또는 불이행 시 비례적 제재 부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랜시스 림 SEC 위원장은 “실소유자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부패와 금융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허점을 해소하고, 정부의 부패 척결 및 불법 금융 활동 방지 노력과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책은 기업 부문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대한 SEC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준에 필리핀을 맞추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With a report from Joann Villanueva/PNA)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61707>

DPWH·PCC, 입찰 담합 근절 위해 협력

October 24, 2025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필리핀 공공사업고속도로부(DPWH)와 필리핀 경쟁위원회(PCC)가 공공조달 및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의 공정 경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사업부 빈스 디존 장관과 경쟁위원회 마이클 아가날도 위원장은 목요일 양 기관 간 양해각서(MOA)를 체결하고, 입찰 담합(bid-rigging)과 시장 지배력 남용(abuse of dominance) 등 공공사업 분야의 반(反)경쟁 행위 탐지 및 대응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1억1천만 페소, 이후 반복 위반 시 1억1천만~2억7천5백만 페소 또는 1억6천5백만~2억7천5백만 페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양 기관은 관련 사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시장 행위의 선제적 모니터링, DPWH 정책의 경쟁정책 정합성 검토 등을 통해 국가 경쟁정책 및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 확보를 약속했다.

PCC의 마이클 아가날도 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필리핀의 공공 인프라를 강력하고 회복탄력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경쟁력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양해각서는 단순한 정책 조율을 넘어, 공정 경쟁을 통한 국가 발전(nation-building)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의 도로와 교량이 콘크리트와 철강뿐 아니라 신뢰와 청렴성으로 건설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DPWH는 현재 대규모 홍수 방지 사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으며, 최근 부서 개편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새로 임명된 디존 장관은 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맡고 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10/24/business/top-business/dpwh-pcc-partner-to-combat-bid-rigging/2207187>

투자심리 위축, 필리핀 은행 실적에 부담 우려

October 24, 2025 | Aaron Michael C. Sy | BusinessWorld

투자 및 경기심리 약화로 기업 대출 수요가 둔화되고,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다만, 소비자금융 부문의 확대 전략이 이러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수익성과 대출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루벤 카를로 오. 아순시온 필리핀 유니온은행(Union Bank of the Philippines, In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심리 위축으로 대기업 대출 수요가 둔화되고 있지만, 필리핀 은행들은 여전히 두 자릿수 대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소매금융(retail)과 중소기업(SME) 부문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으며, 중앙은행(BSP)의 유동성 완화 조치와 견조한 예금 기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업 대출은 여전히 위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과 공공요금(utilities) 부문이 대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순시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생산 부문 대출은 9월 약 9.3% 증가에서 12월에는 6.6% 성장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신용 성장세를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둔화의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며 “① 제조업 대출의 지속적인 감소로 연말에는 6.8%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② 기타 생산 부문 전반에 걸친 대출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 자료에 따르면, 8월 은행 대출 증가율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니버설 및 상업은행의 기업·개인 대출 잔액은 8월 기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3조6,200억 페소로, 7월의 11.8% 증가보다 둔화된 수치다. 이는 2024년 11월(11.1%)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8월 생산 활동 관련 대출은 9.9% 증가(11조5,100억 페소)하며 7월(10.8%) 대비 성장세가 완화된 반면, 소비자 대출은 1조7,900억 페소로 23.9% 증가해 전월(23.6%)보다 소폭 빨라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BSP는 최근 예상 밖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정부 인프라 부패 스캔들로 인한 기업 신뢰 저하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정책금리를 3년 만의 최저 수준인 4.75%로 낮췄다. 이는 2024년 8월부터 누적 175bp 인하된 수치다.

엘리 리몰로나 BSP 총재는 향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며, “부패 사건의 신뢰성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필리핀개발연구원(PIDS)의 존 파울로 R. 리베라 선임연구원은 “은행들이 소비자금융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기업 대출 부진을 일부 상쇄하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낮은 금리 환경, 가계 소비 회복, 디지털 대출 혁신 덕분에 은행들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진(MARGINS)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금리 인하가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출 비용이 낮아지면서 신용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퍼스트 메트로 인베스트먼트(First Metro Investment Corp.)의 크리스티나 S. 올랑 리서치본부장은 밝혔다.

그녀는 “은행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대형은행들은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라 연구원도 “BSP의 금리 인하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금리가 낮아져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될 수 있다”면서도, “특히 가계와 중소기업(MSME) 부문에서 대출이 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대출 수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5]



투자심리 위축, 필리핀 은행 실적에 부담 우려

[Cont. from page 4]

그는 “대출 증가가 거래 규모 확대에 은행의 수익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신용심사 기준이 완화될 경우 신용위험 노출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험관리 통제가 미흡한 상태에서 급격한 대출 성장은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은 마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기반 서비스 다각화, 신용심사 강화, 디지털 효율성 제고 등에 전략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중앙은행(BSP)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은행업계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한 1,981억4,000만 페소로, 2024년 같은 기간의 1,902억6,000만 페소에서 증가한 수준이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banking-finance/2025/10/24/707546/weakening-investor-sentiment-may-weigh-on-phl-banks-performance/>

비즈니스 기회와 성장

October 24, 2025 | BUSINESS SNIPPETS - Marianne Go | The Philippine Star



However, I felt the need to bring attention to what Banga said, especially his view on the need to focus on creating the conditions for opportunity and stability, alongside rebuilding from the damages caused by war in conflict areas.

STAR / Michael Varcas

최근 열린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례총회에서 나는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아제이 방가(Ajay Banga) 총재의 본회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주간 국내 언론은 입법 및 인프라 부패 문제에 초점을 맞추느라 그의 연설 내용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방가 총재의 발언, 특히 기회와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의 복구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는 그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방가 총재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shift)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85% 이상이 현재 우리가 ‘개도국’이라 부르는 국가들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강조했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12억 명의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지만, 그들에게 제공될 일자리는 약 4억 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큰 격차를 의미합니다.”

방가 총재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초마다 네 명의 젊은이가 전 세계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내가 이 연설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수만 명의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의 문턱을 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기회를 향한 갈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방가 총재는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아프리카를 지목하며,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네 명 중 한 명이 아프리카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이 젊은 세대는 그들의 에너지와 아이디어로 21세기를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need)’가 아니라 ‘기회(opportunity)’에 초점을 맞춘 올바른 투자를 한다면, 세계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을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가 총재는 경고했다. “만약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없다면, 이들의 낙관론은 절망으로 바뀌어 불안정, 사회적 혼란, 대규모 이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지역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모든 개발 전략, 경제 전략, 그리고 국가 안보 전략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일자리’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대기업에 입사해 경력을 쌓는 것일 수도 있고,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 창업해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Cont. page 6]

비즈니스 기회와 성장

[Cont. from page 5]

“일자리는 단순한 급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남녀 모두가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삶의 목적이자 존엄의 표현, 가정을 지탱하고 사회를 결속시키는 중심축입니다.”

“그것은 안정으로 가는 가장 곧은 길이며, 한 번 성취하면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진전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마찬가지로 집중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 젊고 교육받았으며 열정적인 필리핀 청년들이 국내에 머물러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필리핀을 더 높은 경제 성장 단계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6월 기준 고용 통계에 따르면, 고용률은 96.3%로 비교적 높았고, 실업률은 단지 3.7%, 불완전고용률은 11.4%로 나타났다.

좋게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고용 통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비중은 61.4%에 달한다.

농업 부문 — 즉 농부와 어부를 포함하며 약 1억 1,700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분야 — 은 전체 취업 인구의 단지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은 17.7%에 그친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이 고용 통계에 감명을 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학 교육을 받은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해외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송금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반가(Banga) 총재가 지적했듯, 전 세계 청년층 통계를 보면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더 많은 필리핀인들이 화이트칼라 직종을 추구하면서, 원래는 주요 소득원이 되어야 할 농업 부문은 계속 침체되고 있다. 농부와 어부들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농업 분야에서 일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의 농업 부문을 활용해 기본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수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이미 큰 경제적 실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체적인 농업 생산력 강화를 위한 집중보다는 여전히 수입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려 한다.

내가 우려하는 점은, 정치와 부패 문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중요한 농업 분야조차도, 젊은 필리핀인들 사이에서 농업 관련 전공을 공부하려는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제 교육 평가에서 우리 교육기관들의 순위는 놀라울 정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점점 더 많은 외국인 IT 인력이 채용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최근 내가 쓴 글에서도 언급했듯, 인공지능(AI)이 더 기본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업무를 대체하면서, 초급 수준의 IT 및 BPO 일자리조차 줄어들고 있다.

‘재교육(Upskilling)’이 새로운 구호가 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교육이다. 현 교육부 장관 역시 정치적 논란과 부패 의혹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또한 요즘 젊은 노동자들은 단기 계약 형태의 ‘직(gig)’ 일자리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수익성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노후에 의지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수익성 높은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옮겨 다니며 당장의 현금을 버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대부분은 아직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미래의 의료비 문제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료 칼럼니스트인 부 찬코(Boo Chanco)와 시토 벨트란(Cito Beltran)이 각자의 칼럼에서 지적했듯,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0/24/2482007/business-opportunity-and-growth>

UPCOMING EVENT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KCCP)는 **2025년 11월 24일 마카티 스포츠 클럽(Makati Sports Club)**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할 테이블 후원사(Table Sponsor) 또는 경품 후원사(Raffle Sponsor)를 모집합니다.

이번 연말 행사에는 한국과 필리핀의 주요 기업 리더들이 함께 모여 성탄절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Ms. Chi / Ms. Sang
Tel No. +632-8885-7342
Mobile: 0917-801-5920 | 0915-888-7296 (both available in Viber & Kakaotalk)
email info@kccp.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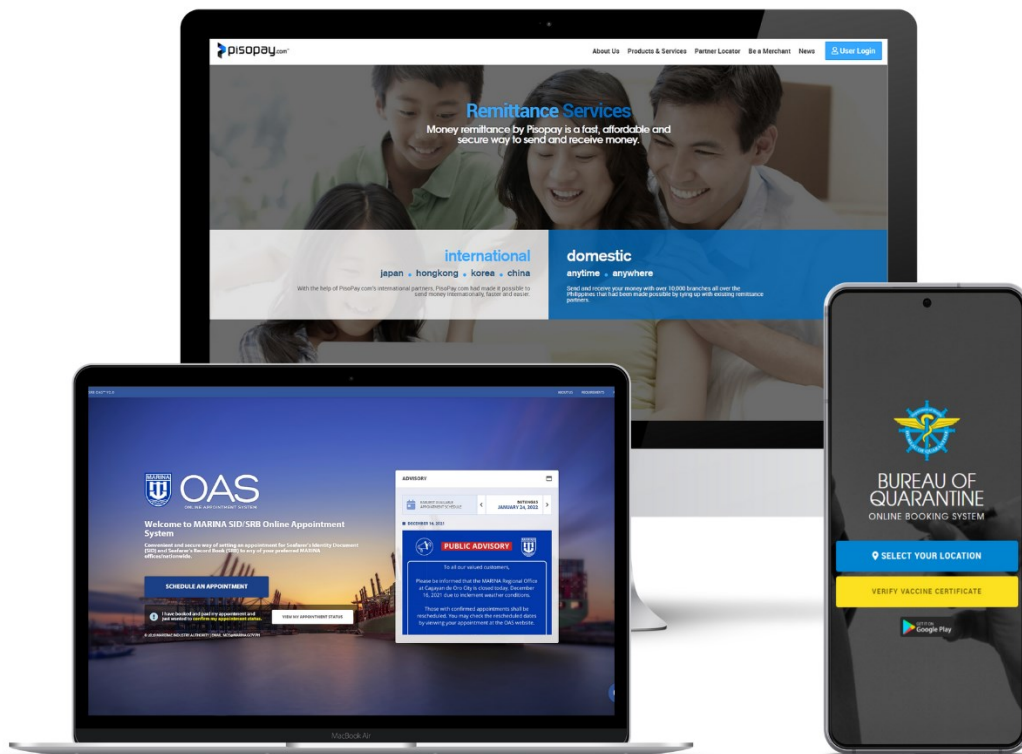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